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할렐루야로 (시편 146:1-10)

With Hallelujah (Psalm 146:1-10)

시편 146-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맺는 할렐루야시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Hallel과 Jah의 합성어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평생 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salms 145-150 are the psalms of hallelujah. These psalms begin with hallelujah and end with it. The word 'hallelujah' is a compound word, consisting of halle (praise) and jah (Jehovah).

Psalm 146 teaches those who have become God's people how to praise Him as their main task through their entire life.

1. 성민의 평생 과제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에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말씀 선포는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 The holy people's task through their entire life

The task that God's people must work out through their entire life is to worship God. "Worship" is a response of thanks to God. If we do not know who God i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then we cannot worship Him in truth. Moreover, we must understand and think on His attributes. God has revealed Himself in the Bible. Accordingly, the Bible and the proclamation of God's word are the

nucleus of the worship service. Worship is really a personal task. Nobody can worship God on my behalf. Therefore, each of us must worship God individually.

2. 유일한 찬양의 대상

시인은 3-4절에서 도울 힘이 없는 귀인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예배를 실패로 이끄는 주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에서 멀리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고 죽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왜냐 하면 그는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 The only object of praise

The psalmist warns in vv. 3-4. "Do not put your trust in princes, in mortal men, who cannot save." We often consider men to be more precious than God. This becomes the main issue that leads worship into failure. We know that God is theoretically the most precious, but since God is not seen with our eyes, He is often far from our thoughts. We can only see men. Moreover, men are weak and mortal in their existence. Therefore, we must not focus on mortal men, but praise and worship God. Without any condition, the only object that we can rely on is God. He is the only one who should receive our praise. He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human beings.

3. 가장 큰 복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 약속됩니다. 본시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으로 7번 나타냅니다.

- ① 여호와와 우리 소망 되신다(5절).
- ② 여호와와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6절).
- ③ 여호와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7절).
- ④ 여호와와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8절).
- ⑤ 여호와와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8절).
- ⑥ 여호와와 의인들을 사랑하신다(8절).
- ⑦ 여호와와 나그네를 보호하신다(9절).

3. Give thanks to the only one who can give us the greatest blessings

The greatest blessings should be reserved for those who do not rely on men but on God. These are men who worship God as they have promised. In Psalm 146, God's name, Jehovah in the covenant, appears seven times.

- (1) The Lord is our hope (v. 5).
- (2) The Lord remains faithful forever (v. 6).
- (3) The Lord sets prisoners free (v. 7).
- (4) The Lord gives sight to the blind (v. 8).
- (5) The Lord lifts up those who are bowed down (v. 8).
- (6) The Lord loves the righteous (v. 8).
- (7) The Lord watches over the alien (v. 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한 능력이 있으시며, 완전히 믿으실만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By praising the Lord who is completely good, almighty, and faithful, and by crying out 'Hallelujah,'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홍해작전 승전 5일 앞으로

6월20일(주) - 25일(금) 새벽 5시 / 강사 - 오덕교 목사



오덕교 목사

지난 6월6일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2010홍해작전이 승전까지 앞으로 5일 남았다.

오늘부터 25일(금)까지 오덕교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새벽강단을 이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홍해를 건너온 영광된 자리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성도들 모두 참여하여 승전의 날 모든 성도가 홍해를 건너온 놀라운 체험을 하기 바란다.

출석시 받은 퍼즐을 잘 부착하여 6월25일 홍해작전 마지막 날 교구, 다락방,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홍해작전본부에 제출하기 바란다. 제출된 퍼즐에 액자를 조립하여 교구 간사실을 통해 선물로 드릴 예정이다.

홍해작전 4행시는 6월20일(주일) 마감하며 교회학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일반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6월27일(주일) 홍해작전 승전감사 예배시 시상한다.

6월27일(주) 찬양예배는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로 드린다. 또한 25일 승전기념 떡잔치를 피택집사들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2010년 홍해작전 본문과 제목

- 6월 20일(주): 하나님의 본심 (렘 29:11-13)
- 6월 21일(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히 11:5-6)
- 6월 22일(화): 기도의 우선순위(마 6:33-34)
- 6월 23일(수): 찬송의 열매시(113:1-9)
- 6월 24일(목): 사도행전의 사람들(행 17:5-10)
- 6월 25일(금): 바나바처럼(행 4:36-37)

제19차 KIMCHI 신학세미나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이틀 앞으로 다가와

6월 22일(화) 오후 5시 - 서울교회에서 개회예배 드려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0 한국대회(제19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6월22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 서울대회는 6월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교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리게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Witness Jesus Christ Today)(마24:14)는 주제로 세계 선교의 어제·오늘·내일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모인 100여명의 교수와 선교사를 중심으로 10개 분과로 나누어 선교학술대회를 가진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회 첫째 날인 6월22

일(화) 오후5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총3부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이종운 목사가 인도하는 1부 개회예배, 폴 피어슨 박사와 이종운 목사의 기조연설로 이어지는 2부 주제 발표, 그리고 3부 환영 및 만찬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100년 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날 교회의 제반 문제를 진단하여 앞으로 100년 동안의 세계선교의 대안을 마련하게 될 이번 2010 한국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깊은 기도가 요청된다.

6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유종숙 권사(6교구)
- <2독> 유을상 집사(6교구) 임명숙 집사(8교구) 이은유 집사(9교구)
- <1독> 박석현 집사(3교구) 김숙자 권사(6교구) 하정자 권사(6교구) 한상준 집사(8교구) 여현진 권사(10교구) 이인선 권사(12교구) 문금희 집사(13교구)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정기모임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이하 한기원) 2010년도 3차 정기모임이 5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지난 17일(목) 서울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예배에서 이종운 목사는 "목자같이 인도하시리라"의 제목으로 "일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온 원로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설교했다. 이날 한기원 대표회장인 방관덕 목사가 이종운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이종운 목사를 한기원 후원이사로 추대하였다.

칼빈과 한국교회 1권 출간되다

-전 4권으로 72편 칼빈관련 논문집-



요한칼빈탄생5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운)는 칼빈과 한국교회 시리즈 총 4권 중 1권을 출간했다.

주제강연(이종운, 폴 웰스) 2편과 1부-칼빈과 신학, 2부-칼빈과 한국교회 제하의 논문 10편이 실렸다. SFC 출판사가 신국판 407면으로 출판한 이 책은 칼빈신학 연구의 백과사전으로 칼빈관련 70편의 논문이 차례로 출간된다. 1권의 정가는 14,000원이다.

홍해작전 교육1국 백일장 그리기 대회 수상자

최윤 (유치부 최우수상)



김세영 (유년부 최우수상)



김수일 (초등부 최우수상)

김은초 (초등부 글짓기 최우수상)

저는 저번에 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깁스를 해야 하는 기간이 딱 홍해작전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홍해작전을 가야 하는데, 발이 다쳐서 어떻게 해야할지 가족들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내 홍해작전에 가야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생신이라서 저는 우리집에 오신 할머니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동생을 깨우셨습니다. 저는 다리 다쳤으니깐 안가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첫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다. 홍해작전에 가야 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갔는데 저만 가지 못해서 섭섭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꼭 가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 신기하게도 눈이 번쩍 떠지며 저절로 몸이 일으켜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홍해작전에 나오게 해주

시려고 그러시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뒤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홍해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말씀과 새벽을 깨우는 찬양소리가 제 마음에 울려 퍼지니 발이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마치 제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홍해작전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제가 기특하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월드컵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월드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끝날때까지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께서 깨우셨을 때 저는 잠이 와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준비할 땐, 마음이 허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나가려고 할 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홍해작전을 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발이 다쳐서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 있게 홍해작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의달 6.25전쟁

당신은 6.25를 아십니까?



최명진 성도
(디아스포라부)

살림!!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에서 살다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찾아 지난

2001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 청년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얻었고, 깨달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깨달은 많은 진실 중에서도 6.25전쟁에 대한 진실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한 귀중한 계기였습니다.

제가 나서 자란 북한에서는 6월이 되면 6.25전쟁을 기념하여 전국적인 계급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6.25전쟁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북한정권이 남조선의 불쌍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주기위해 벌인 애국전쟁이며, 6.25전쟁은 신성한 공화국을 침범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무찌르기 위한 선의의 전쟁이었다는 것이 북한정권이 지금도 떠들어대고 있는 6.25

쟁의 진실입니다. 저 역시 북한에서 살 때에는 6.25전쟁에 대해 북한정권이 떠드는 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6.25전쟁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은 남조선에서 일으킨 전쟁이 아닌 북한의 김일성 독재정권이 남조선을 공산주의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깨닫게 된 6.25전쟁의 진실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직접 싸우신 전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기에 6.25전쟁은 북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승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음을 저는 서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남한주민들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아무리 날뛰고 헐박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홍해작전

홍해를 건너며

오선숙 성도 (11교구)

말씀의 불기둥
은혜의 구름기둥 따라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나선 걸음
넘실대는 붉은 물결
추격하는 말발굽 소리에
다리가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다가 요동 칠 때도
주님의 손길인 줄 모르고
오슬오슬 몸을 떨었습니다

넘실대던 파도가 편 가르기를 마치고
바닥이 드러나며 진흙이 굳어갈 때
그제서야 열린 하늘문 틈으로
빛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위협하던 파도는
졸린 눈을 깜빡이며 순하게 정렬해 있고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던 거친 바람은
나래를 고이 접고 휘파람으로 응원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던 두려움의 눈길은
하늘을 우러르는 감격으로 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쓰디 쓴 탄식은
상큼한 바다내음 담은
향기로운 찬양이 됩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그렇게 환호하며
마른 땅 드러난 바다 한 가운데를
춤추며 노래하며 뿔뿔이로 건넵니다.



에딘버러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

세계선교 어제와 오늘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는 1910년 6월 14일부터 열흘 동안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적인 선교대회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선교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대표하여 1234명(159선교단체에서 파송한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면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심도 깊게 논의한 대회였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주전(B.C)과 주후(A.D)로 구분하듯이, 교회역사와 선교역사는 에딘버러대회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에딘버러대회는 기독교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딘버러는 작은 도시이지만 리빙스톤, 알렉산더 더프, 그리고 존 로스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들을 수없이 배출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스코틀랜드 기독교회는 선교 인력도 선교 재정도 선교 열정도 잃어버리므로 10년 전부터 100주년기념대회를 준비해오다가 2년 전에 에딘버러에서 100주년을 기념할 수 없게 되었으니, 각 나라 각 교회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라고 선언할만큼 스코틀랜드 교회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100년 전 1910년 당시 한국기독교인은 전체 국민의 1%도 되지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약 2만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선교열정은 대단히 뜨거운데 선교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 점을 감안하여 지난 100년의 세계선교를 회고하고 향후 100년의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학술대회로 준비하였습니다.



남정우 박사
(에딘버러100주년기념 2010한국대회의 사무처장)

100년 전 에딘버러대회를 개최할 때 많은 지도자들의 도움과 헌신도 있었지만, 특별히 존 모트와 올드햄과 같은 두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에딘버러회를 향해하는데 미국인 존 모트(이후 노벨평화상을 받음)는 선장과 같은 인물이고, 영국인 올드햄(WCC조직의 산파역할)은 기관장과 같은 인물이었다고 평합니다.

이번 2010한국대회를 조직하고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서울교회 이종운 박사님이고, 기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장신대 이광순 박사님입니다. 이 두 분의 지도력으로 이번 대회에서 세계

여러나라 선교학자들이 강연을 하시고, 100명의 선교학자들이 10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100개의 선교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연과 논문은 세계선교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하고 그리고 내일의 선교를 준비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100년 전 에딘버러세계선교사대회에서 다루어졌던 선교주제들을 기록한 고문서 5천여 페이지를 한글로 번역 출판하여 세계선교를 위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보다 지혜롭고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1910년에 열린 에딘버러세계선교사대회가 이후 100년간의 선교운동과 교회운동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처럼, 2010한국대회도 향후 100년간 선교운동과 교회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뜻 깊은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며 참여하며 도움을 주시는 것은 세계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귀한 헌신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소망합니다.

홍해작전

에바다부가 건너는 홍해

왕경애 권사(에바다부 부감)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서울교회만의 독특한 새벽기도인 홍해작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께서 올해는 천안함 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이 나라가 홍해를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을 가르며 달려오는 우리 에바다부 식구들은 목사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으려 수화 통역하시는 교사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귀 기울이십니다.

뜨거운 여름 햇빛을 받으며 호흡을 굽는 일을 하는 신태봉 집사님은 새벽을 가르며 제일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 오신다. 항상 웃음 짓는 그 얼굴은 홍해작전 기도시간에도 천사의 얼굴과 다름이 없으시다. 에바다부를 늘 웃음바다로 만들어 주시는 고광환 집사님은 청년부에 다니는 딸과 함께 새벽녘을 떠다 않고 달려오신다. 그 얼굴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다. 그리고 우리 에바다부를 인도하고 계시는 임목사님의 아들인 진호는 이제껏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졸음이 눈에 가



득 담겨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모습이 기뻐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에바다부 식구들이 이번 홍해작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한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에바다부 식구들이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홍해작전의 캐치프레이즈를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 가기를 기대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하신 주님이 지금도 서울교회 에바다부가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건너 지금보다 배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권성순 성도의 독창으로 드린다.

연세대 음대와 독일 뮌헨국립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 귀국하여 현재 한국교원대, 수원대, 강남대 등에서 강의 하며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권성순 성도는 '예수님 날 위해(R. Harkness)', '온 맘 다해(B. Mason)' 등 세곡을 조현정 성도(가브리엘찬양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연주한다.

영어예배부 피아니스트 봉사자 초청

영어예배부 피아니스트로 봉사하실 성도를 찾는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피아노를 전공한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가지면 된다. 관심이 있으신 성도는 찬양위원장 박정선 장로(010-8937-2681)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22일(화) 장로교회의 날 준비위원 교단장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에는 에딘버러 선교사대회 100주년 한국대회 기조강연을 하고, 26일(토)과 7월4일(주일)에는 인천과 부산에서 개회설교를 한다. 25일(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임시사회에 참가한다.

■ 임범창 집사(5교구, 아멘관현악단지휘)는 대한민국 해군 군악학교(동문) 심포니 밴드 초대 지휘자로 초청되었다.

■ 선임: 김종운 집사(4교구)는 재단법인 교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 득남: 심군섭 집사 정수은 성도 가정(7교구)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6.20) 이삭선교회(7.4)

■ 금주의 식사: 최근보 집사 김은희 집사(13교구) (시편강해 받은 은혜 감사하며) 교회제공

■ 떡제공: 피택권사일동 (이종운 목사님 시편강해 종강을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홍해작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축복

송지윤 집사(11교구)



"정균엄마~!! 어떻게 정균이 아토피 고쳤어?"

"기도로 나왔죠~!!"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써서 주신다는 말, 이제 깨닫습니다.

2년 전 홍해작전 때 온통 화상 입

은 것처럼 심했던 정균이의 아토피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깨끗이 나았고 여러 가지 기도제목과 정균이 세례 때 남편이 교회에 오는 등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은 홍해작전기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보듬고 눈물과 기도로 밤을 새우며 언젠가 낫게 해주시리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제발 지치지 말라고 우리가 있으니 같이 기도하며 견디라고 했던 다락방 권사님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며 위로해 주던 유아부 엄마들과 선생님들, 지금은 정균이를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날 정도입니다.

3개월 전부터 새벽기도를 다닐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홍해작전에는 애들과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현관 책상위에 하루 하루 퍼즐이 맞춰질 때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른답니다.

해라네는 아이들을 7시에 재우고 학원도 안 보내고 홍해작전에 집중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아이들도 7시에 잠을 재웁니다. 밖에 환한 창문을 보며 정연이는 홍해작전 가려면 일찍 자야한다는 엄마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보다 귀하게 키우기 위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언젠가 남편이 같이 교회 갈 날을 기대하며 오늘 새벽도 애들과 함께 교회로 향합니다.

정균이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균이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홍해작전기간 동안 우리 모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은 동안도 홍해를 잘 건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말씀과 기도로 홍해를 가르는 홍해작전 위하여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북핵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